

## [그말씀 설교 8]

### 여호와와 낮을 피하려고

[본문] 요나 1:1-17 / 이문식 목사 / 페이지 수: 4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낮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욘 12:3)

오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져주는 질문은 ‘왜 요나는 도망하였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요나는 소위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이스라엘에 선포할 책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의 본질이요, 기쁨의 근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선지자인 그가, 그럼 왜 도망하였을까요?

얼핏, 오늘의 본문을 잘못 보면 니느웨가 싫고 다시스가 좋아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나는 의도적으로 다시스를 도피지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는 옴바로 무작정 내려갔다가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 항구로 내려갔고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를 그의 마음속에서 비교하여 대조해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 자유와 도시 다시스

‘니느웨와 다시스’. 사실, 이 두 도시는 요나 시대의 대조적인 삶의 양식(life style)을 나타냅니다. 니느웨는 군국주의 국가 앗수르(Assyria)의 수도였습니다. 주민 조직이 모두 군사조직이고 그 백성의 성품은 잔혹하고 강박했으며 그 도시에는 구조적인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노아와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비명과 탄식 소리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고대의 제국도시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시스(Tarsus)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협에 있던 고대의 자유무역도시였습니다. 요즘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에는 풍요 자유와 안정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소위 고대의 세속도시(Secular city)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오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갈 바에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에이,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고통과 갈등 그리고 사명과 책임을 연상시키는 고달픈 도시 니느웨 대신에 자유와 평안 그리고 낭만을 보장하는 다시스. 그것이 요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택입니다. 탕자의 선택은 필경 돼지의 쥐엄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가 일단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육체라는 돼지를 치기 시작하면 그에게 남는 선택은 돼지의 삶 쥐엄 열매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다시스를 그의 망명처로 선택한 것입니다.

## 민족주의자 요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해보십시오. 과연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단지 그곳이 고통스러운 삶의 장소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니느웨를 기피한 이유를 이렇게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와 의 낮을 피하려고…도망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의 낮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오늘 요나는 도망한 것입니다. 왜 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여호와와 의 낮에 무엇이, 어떤 표정이 나타났기에 오늘 요나는 그 표정이 싫어서 도망가기까지에 이른 것일까요?

‘니느웨와 여호와와 의 얼굴’,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기에 이 예민한 선지자는 머리를 배 밑층의 로프더미 속에 틀어박고 자기 망각의 긴 도피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기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와 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 싫어서 아예 망각의 긴 잠 속에 자신을 꾸겨 넣고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오늘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멀고도 깊은 도피처 니느웨로 의식의 끝 무의식의 세계로 도피하는 이유를 바로 알려면 요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원래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780년경 여로보암2세 때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당시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란 예언을 하였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왕하14:25). 그래서인지 요나는 그의 적대국인 앗수르에 대하여도 아주 배타적이며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몽매에도 원했고 차마 기도까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열렬히 소원했던 편협한 태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일보 직전에 있다는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에 맨 처음에는 기뻐 뛰고 싶었을 것입니다.

## 이율배반의 사명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면 또 그 사명- ‘니느웨 멸망에 대한 최후 경고의 사명’-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이것은 이율배반의 사명이었습니다. 요나는 결코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경고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예언과 심판의 선포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악독하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하지 않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에게 ‘니느웨가 혹시 회개할지도 모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명은 그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불안한 것은 이 말씀을 요나에게 선포하실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와 의 낮’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의 낮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히브리적 관용어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잠길 때마다 이 예언과 함께 떠오르는 하나님의 표정이, 심령으로 느껴지는 그 얼굴 모습이 아주 꺼림칙했고 불안했으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여호와와 의 낮을 피하려고 도망간 것입니다.

## 큰 성읍 니스웨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기에 이렇게 요나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고야 말았을까요? 그 얼굴은 바로 '자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공휼'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큰(\*\*\*)'이란 수식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니스웨에 대한 감정과 속마음은 바로 이 '큰(\*\*\*)'이란 단어에서 뿜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이 '큰'이란 수식어가 쓰여진 그 앞 뒤 백락을 잘 살펴보면 바로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공휼의 숨결이 넘실거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1: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3:2). “하물며 이 큰 성읍 니스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함당치 아니하냐.”(4:11).

저 큰 성 니스웨, 이 큰 성읍. 하나님은 니스웨의 큼을 보실 때에 결코 그 건물이나 도시의 큼에 주목치 않으셨고 그 큰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 큰 도시의 그 큰 인구 중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 아이들 어른들의 죄 때문에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 아이들이 무려 십이만 명이나 있었고 또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함께 멸망당해야만 하는 수많은 육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휼의 시선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육축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 큰 성읍, 이 큰 성읍 니스웨에는'이라고 하실 때에 그 큰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휼의 숨소리가 악센트와 함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니스웨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언뜻 내비치는 그 표정을 예민한 선지자 요나는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아, 자비의 표정이구나. 하나님의 니스웨를 향한 속마음은 결국 공휼이었구나. 이런 젠장, 니스웨로 가봐야 결과는 뻔하구나! 내가 가서 외치면 그래서 니스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실 것이 뻔해.

야, 도망가자. 도망가서 이 경고의 사역을 안 하는 것이 니스웨 멸망의 유일한 상책이구나. 도망가자...' 그래서 요나는 오늘'여호와의 낫을 피하려고' 옴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 이 시대의 요나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시대의 요나들은 바로 자기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표정이 다를 때 그것을 못 견뎌 하며 도망하는 것입니다. 니스웨를 향한 요나의 얼굴. 그것은 차갑게 굳은 응어리진 원한의 얼굴입니다. 그것은 심판과 명망을 보고야 말겠다는 냉혹한 얼굴입니다. 그것은 사랑보다는 공의에 집착한 얼굴입니다. 사회와 역사의 어두운 시절 -니스웨의 군사문화가 강타한 80년대의 쇼크 시절에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목마르게 -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했습니까? 그런데 90년 대 초반이 지나가는 지금 저는 그 갈망이 그 선한 기도가 이제는 집착과 원한으로 응어리지는 일부 극단적인 현상을 보면서 깊은 우려가 생깁니다. 또 때로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처럼 공의에 대한 집착이 이전 역사에 대한 허무와 냉소로 바뀌어서 그저 '다시스로, 다시스로'하며 세속적인 쾌락주의로 굴러 떨어지는 더욱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영적인 잠을 자는 모습 비참한 자괴감으로 몸을 비틀고 꾸부리며 배 밑창에서 딩구는 우리 기독교청년학생의 모습(5절)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의 이런 도피가 좌절될 때에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행위는 바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12절,15절)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 - '던지라'는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가장 극악하게 맞받아치는 반역의 행동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도망하는 요나를 태운 배를 향하여 '폭풍을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이 내리시매 라는 단어는 '목표물 향하여 정확하게 발사하였다'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오늘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대풍을 쏘셨으니 나도 내 몸을 맞받아서 쏘아 내던지겠다는 극단적인 자해적 저항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낮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추적에 걸려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을 때 그가 보인 그 완악함 그 극단적 태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저항, 그리고 이전보다 더 굳어진 새파란 얼굴로 바다로 내던져지기를 구하는 요나, 이 요나의 강박한 얼굴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어떤 얼굴을 계속 보이실까요?

### 자비와 긍휼의 얼굴

사실 오늘 요나는 이방인 서원들이나 니느웨 백성보다 더 완악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의도적으로 '회개하는 이방인들'과 '회개 않는 요나 -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자"(9절)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머릿속의 신앙 고백은 온전하나 그 삶에서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표본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입술-그리스도인(lip-christian)'의 비참한 상태. 신앙고백적인 관념은 있으나 기도와 헌신이 없는 죽은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더 나아가 자신의 욕구를 절대화하여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저항하겠다는 '자기 우상(Self-Idol)'에 빠진 반역성. 그리고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굳어지는 강박한 자신의 얼굴. 시퍼런 바닷물을 향하여 자기 몸을 내던지며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요나의 돌처럼 파리하게 굳어진 강박한 얼굴. 이방 선장이나 이방의 니느웨 왕 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사라져버린 그의 내면의 황폐함. 이 요나의 굳은 얼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물고기였습니다(17절). 사랑의 큰 물고기. 그렇습니다. 큰 아주 큰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강박한 요나의 얼굴을 향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여호와와 낮이었습니다. 니느웨의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까지도 긍휼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의 표정은 이제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독한 상태로 굳어진 요나의 표정까지도 녹여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여호와와 낮을 결단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결국 이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에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저항이 아무리 완악해도 우리를 결국 자신의 사랑의 포로로 만들고 마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얼굴 그 낮을 바짝 우리 앞에 직면시키시며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자비와 긍휼의 표정으로 바꾸어 놓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 출처 : 그말씀